

동아시아는 너무 진지해!

포예술가 3인의 유쾌한 비틀기
국립현대 서울관 '시징의 세계'展

서울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지하 1층. 전시장 입구부터 웃음이 터졌다. 표만 있다고 입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환하게 미소를 짓거나 호탕하게 웃는다.” “노래를 한 곡조 부른다.” “매력적인 춤을 춘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지켜야 ‘시징(西京)의 세계’에 입장할 수 있다. 춤이나 노래보다 쉬운 것이 호탕한 웃음이 아니겠는가. 실제 시징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웃음을 허락받고 나서야 그 이상한 시징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었다. 시징이란 한·중·일 3국 작가 그룹이 만든 ‘가상의 세계’이자 유토피아를 상징한다. 한·중·일 3국에서는 동경, 남경, 북경 등 방위를 지칭하는 수도 이름이 실제 존재하지만 서경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시징을 건설한 작가는 한국 김홍석, 중국 천사오슝, 일본 오자와 쓰요시다. 모두 1960년대생으로 개념미술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은 2006년 시징에 사는 자신들을 시징맨으로 칭하면서 공동 작업을 수년째 계속하고 있다.

전시장에는 이들이 아티스트라는 이름

으로 얼마나 황당하면서도 싱거운 희극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 행위는 마치 역사 문제 때문에 최악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한·중·일 3국 간 정치사회적 현실을 조롱하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이번 전시는 ‘시징을 아시나요’ ‘시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시징이군요’ ‘시징을 사랑해요’ 등 4개 챕터로 나뉘어 있는데 다양한 공간에서 일부가 소개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꺼번에 4개 챕터가 한 공간에 펼쳐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챕터에서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신랄한 풍자가 담겨 있다. 축구장 대신 소형 골대 앞에 수박을 놓았고, 수영장 대신 물이 가득 차 있는 대야 세 개를 놓는 식이다. 작가는 수영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야에 머리를 숙여 누가 오래 있나 경기를 벌인다. 마라톤을 직접 뛰기 어려우니 대신 머리맡에 시계와 스톱워치를 놓고 누가 오래 자는지 게임도 벌인다. 의미를 찾기 어려운 썰렁한 행위의 연속이다.

전시는 8월 2일까지.

이향휘 기자



‘시징의 세계’전에 참여한 작가 3인의 개별 작업이 펼쳐져 있다.